

# 순천시, “팔마의 기상으로!” 병오년 해맞이 행사 개최

## ‘기운이 난단 말이야~!’ 시민과 함께 활기찬 새해, 힘찬 출발

순천시는 2026년 1월 1일, 시민들의 새해 활력을 불어넣을 병오년 해맞이 행사를 오전그린아일랜드에서 개최한다. 일출 시각 전인 오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예정이다. 이번 해맞이 행사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붉은 말 소원 적기, 전통놀이 체험(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등), 루미·퐁이·팔마이 캐릭터 포토존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식전 공연과 새해 소망을 담은 영상에 이어 힘찬 ‘대북 타고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합성과 대북 소리가 어우러지며 새해 희망을 북돋우고, 일출과 함께 역동적인 댄스로 감동을 더한다.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순천경찰서, 순천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안전관리 지원과 따뜻한 차 나눔도 함께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팔마의 도시 순천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활기찬 새해를 열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해맞이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적도마처럼 힘찬 발걸음으로 희망찬 순천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2026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지난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3박 5일간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및 현지 지방정부 부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곡성군 부군수를 단장으로 농정과 관계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과 므앙타파발군, 툴라폼군, 께오우롬군 관계자, 계절근로자 송출 전담 교육기관과 면담을 통해 2026년 계절근로자 송출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최근 2년간 곡성군과의 계절근로자 협력이 큰 문제

## 곡성군, 라오스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협력 강화

### 2026년 계절근로자 90명 도입 추진... 안정적 농촌인력 확보 기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곡성군이 행정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분쟁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곡성군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아 재고용을 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신뢰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측은 2026년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을 총 90명으로 확대 추진하는 데 공감했으며,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농가 인력 안

정화를 위해 근무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므앙타파발군, 툴라폼군, 께오우롬군 등 라오스 지방정부와의 협의에서는 근로자 송출 성과와 재입국 희망 현황을 공유하고, 2026년 1월 현지 면접을 통한 우수 인력 선발, 연령 기준의 탄력적 운영, 이탈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툴라폼군 근로자의 경우 곡성군 근무 만족도가 매우 높아 재입국 희망 비율

이 9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곡성군은 2026년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중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공식 초청해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제안을 했으며, 라오스 측은 이에 대해 감사의 뜻과 함께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라오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곡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성과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2026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선발과 관리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복지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 화순군, 노후 저수지 3개소 정비에 총 61억 원 투입 재해위험 해소·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로 영농환경 개선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9일 재해 예방과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노후 농업용 저수지 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총 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동북면 가수저수지 ▲동면 신원저수지 ▲사평면 야동저수지 등 3개소다. 해당 저수지들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노후화로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해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동북면 가수저수지(1998년 축조)는 2026년 수리시설 정비사업 신규 대상으로 선정돼 총 22억 원(도비 17.6억 원, 군비 4.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제방 여유고 확보와 취수시설 보강 등 전반적인 시설물 정비에 이력될 예정이다. 또한, 동면 신원저수지(1968년 축조)와 사평면 야동저수지(1970년 축조)는 2026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신규 대상으로 선정돼 총 39억 원(국비 19.5억 원, 도비 1.95억 원, 군비 17.5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두 저수지 역시 제방 보강과 취수시설 개선 등 안정성 강화를 중심으로 정비가 추진된다. 화순군은 사업 선정을 위해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사업 추진 경과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3개 저수지 모두 신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각 사업은 2026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한 뒤 공사에 착공해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저수지의 홍수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욱 건설교통실장은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은 군민들의 안전과 영농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 사업”이라며, “노후화로 인한 재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용수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무안군, 전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5년 전라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토지행정평가는 새로운 토지행정 시책발굴과 주민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로,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적, 토지관리,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등 토지행정 전반에 대해 1년 동안 추진한 실적을 확인하는 종합 평가다. 무안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적기준점 알림 표지판 설치 ▲개발공시지가 조사 사업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간관 개선 사업 연계 공항 관문지구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정비사업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주도적인 시책사업 추진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무안군 제공



### 영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전달

영광군은 12월 26일 장애인콜택시 사업 수탁기관인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에 신규 구입한 장애인콜택시 3대를 전달했다. 지난 2017년 영광군에 처음 도입된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 차량으로 2026년도에는 이번엔 구입한 3대를 포함하여 총9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현재 총 967명이 이용자 등록돼 있고 2025년 11,365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약 47,500건의 운행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로는 영광군 내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보행장애인 등이며 08시부터 22시까지 기본요금 500원(2km까지), 추가 1km당 100원의 이용요금으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영광/이현식 기자



### 정직한 농부들이 생산한 구례밀 사용업소 현판식

구례군은 지난 12월 26일 오전 11시 목월빵집에서 지역 밀 산업 육성과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구례밀 사용업소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식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구례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월빵집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겨울철 휴경지를 활용한 우리밀 재배는 황량한 들판을 푸르게 만들고, 탄소를 토양에 고정시켜 ‘흡사리기’사업의 핵심 요소이다. 농가 소득 증대와 토양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군은 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군은 구례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례밀 빵 포장재 지원 ▲구례밀과 수입밀의 가격 차액 지원 ▲신제품 샘플 제공 ▲빵 축제 참가 지원 등 4개 분야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구례/한정호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